

“1인당 5억원은 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1인당 5억 이상은 벌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라크전 여파로 국내외의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당 100’을 실현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기업들이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10여명 남짓한 인원이 연 평균 60~70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하면 단 3명의 인원이 연 매출 30억원을 자신하는 ‘알짜’ 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적외선 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인 레이트론(대표 김동철)은 2000년 8월, 3명의 직원으로 창업한 ‘少人’ 벤처기업. 이 기업은 2001년 7명으로 늘어난 직원이 7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2년에는 9.11테러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직원이 60억원을 벌어들였다.

중국 심천에 공장을 확보하고 홍콩과 일본에 사무소를 오픈하면서 3명을 보강한 이 기업은 각종 가전제품에 필수적인 적외선수신모듈을 전 세계 가전제품 메이커의 중국 현지 공장에 판매함으로써 올해 100억원 이상의 외화를 획득할 계획이다.

원격조정 포인터인 ‘스마트포인터’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케이엠텔(대표 영광일)은 대덕밸리의 ‘소인’ 벤처기업 가운데서도 ‘극소인’ 기업의 전형이다. 2001년 9월 설립된 이 기업은 CEO 1인, 영업 1인, 관리 및 경리 1인 등 단 3명이 직원의 전부다.

이 기업은 약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프리젠테이션

마법사 ‘스마트포인터’라는 제품을 출시해 올 3월까지 5개월동안 국내에서만 약 4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전자가속기 업체인 이비테크(대표 한범수)도 10명의 직원으로 지난해 1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올해 대형 X선 검색장치를 출시하며 40~5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기업은 개발 파트에 5명의 직원이 포진해 있고 나머지 영업, 자재구매, 인사총무관리 등을 각각 1명 직원이 도맡고 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고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오픈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아웃소싱’을 불황탈출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트론은 충남 천안의 넥스콘테크놀로지에 생산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케이엠텔은 제품의 조립-제작, 금형 사출을 2군데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케이엠텔은 영업 등도 전문기관에 각각 맡기고 있다.

이비테크 역시 대기업의 판매망을 이용한 영업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에도 국가지원을 받아 러시아 과학자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케이엠텔 연 대표는 “인건비 부담없이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사업의 묘미”라고 말했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한 글자씩 찍는 한글 키보드 등장

신부의 아이디어와 KAIST의 기술력이 만나 글자를 하나씩 눌러 표현하는 신개념의 키보드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패턴인식 국가지정연구소(실장 김진형 교수)은 오랫동안 한글자판을 연구해온 안마태 신부(미국 캘리포니아 거주)와 공동으로 음절 단위로 동시 입력이 가능한 한글자판 ‘안마태 자판’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키보드는 자음 모음을 한개씩 누르던 방식과는 달리 한 글자씩 찍는 방식을 적용했다.

김교수는 “이 자판은 자음 또는 모음 하나씩 입력하던 기존 자판과는 달리 한 글자를 동시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측은 자판 배열은 입력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한글창제 원리에



맞춰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글의 일반적인 모양과 같이 자판의 좌측 상단에 초성(자음), 우측 상단에 중성(모음), 하단 영역에 종성(받침)을 배열했다.

이 자판은 기존 자판과 같이 초성·중성·종성의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보자는 순차적으로 입력하지만 숙달될수록 동시 입력 비중을 높여서 속도가 증가된다고 김교수는 소개했다.

김교수는 “이번 키보드를 개발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면서 “남북한의 키보드 방식이 지금은 다른데 이번에 개발한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